

“시민 중심 전국 1위 행복도시 건설... ‘돌아오는 순천’ 만들 것”

민선 6기 1년

조충훈 순천시장



도시 경관대상 선정 큰 보람 8월에 국가정원 제1호 지정 정원문화산업 육성 본격화

계획이다. 올해 순천만정원 에너지 저감률을 53%로 올리고, 아파트 베란다 미니 태양광 150대 보급, 친환경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했다. 또 해룡천이 환경부로부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선정돼 해룡천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과 생애주기별 안전체험 교실,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벨을 16개교에 설치했다. 시는 ▲보건과 복지 통합서비스인 ‘행복동’ 7개소 운영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구석구석 찾아가는 시민 중심의 행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비 어르신들의 공동거주제 ‘9988 쉼터’ 42개소를 운영 지역사회 복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조형 복지로 평가받았

다. 시는 앞으로 ‘9988쉼터’를 100개소까지 늘리고, 행복동을 24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과 워킹맘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남 최초 중소형 마트 위헤식 품 판매차단 시스템 13개소 설치 운영과 성가물로 병원 광역치매센터 공모에 선정됐다. 또 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줄 공동급식 112개소, 귀농·귀촌 정착가구 549가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과 농업, 농민 모두를 살릴 친환경 농업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조 시장은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도시로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공역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지역 주민 특성에 맞는 창조학습 공동체 행복학습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실시 63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통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각각, 시민과

소통·참여 더 나아가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시는 ‘시민 행복지수 전국 1위 도시’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살고 싶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조 시장은 “8월이면 순천만 정원이 ‘국가정원 제1호’로 지정되고, 순천은 대한민국에 없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지원과 정원산업 유치 탄력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호 국가정원 교과서 등재와 청소년 체험학습 인증장소로 수확여행의 일반지가 될 것이며, 정원산업 관측과 전시·교류의 ‘2016 순천만정원 산업디자인전’ 개최, 2017년까지 정원 지원센터를 건립해 정원문화 산업 관련 창업지원, 가드닝센터 기능 및 인력양성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9월 순천만정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해 뒷밭정원과 먹거리 정원의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조충훈 시장은 “순천 미래 100년, 시민행복 지수 전국 1위 도시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박선천기자 psc@

온누리 상품권 1억5000만원 구입 순천시 공무원들 경제 살리기에 쓴다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메르스 불황 극복 총력

순천시가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순천시에 따르면 메르스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통시장 이용객이 30% 줄었고,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도 60% 정도가 감소했다. 또 6월중 단체방문 및 숙박예정 인원 가운데 3800여명이 예약을 취소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순천만정원(자연생태공원 포함),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등 5곳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촌과 휴양림 등 숙박업소도 20% 할인하기로 했다.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음식·숙박업소와 협의해 10% 할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부터 나서기로 했다.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1억500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역 관광지 둘러보기, 주변 상가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등에 참여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7월과 8월 중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경제살리기 읍·면·동 담당제 운영을 통해 음식점과 골목상권 이용하기, 구내식당도 월 1회에서 주1회로 휴무 확대한다. 시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유관기관 참여가 중요하다며 상인(번영)회 회의,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개최해 지역상권 살리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던 문화예술 공연과 체육행사 등도 정상대로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순천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메르스 관련 격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66명 전체에 대해 지난 23일자로 격리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불안함이 없도록 메르스가 끝날 때까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4개소, 유관기관 단체와 비상방역 체계 강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청정 순천을 지켜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실종아동 예방지침 체계적 관리 순천경찰 여성청소년계 간담회



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순천만 정원 2층 소회의실에서 각 대상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코드 아담’(Code Adam=실종아동 예방지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드 아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대상시설 관리주체 상대 ‘코드 아담’ 준수 의무사항 홍보와 자발적인 협조 유도, 시설관리 주체의 의무사항과 교육·훈련사항, 노후 CCTV교체 등을 협의했다. 최삼동 서장은 “7월이면 ‘코드 아담’ 시행 1주년을 맞는다”면서 “순천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코드 아담’ FTIX 훈련을 실시해 실종아동 발생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초·중생들 ‘아름다운 나눔학교’ 운영...수익금 이웃돕기 쾌척

순천지역 초·중학교가 최근 매곡동 아름다운 가게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나눔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산초등학교(교장 서병춘)를 비롯해 순천 풍덕초, 순천 인안초, 순천 왕지초, 순천 북초, 순천 팔마중, 순천 승평중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들이 기증한 도서와 음반, 의류, 그릇, 학용품, 주방용품 등 3000여점의 다양한 생활용품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다. 수익금 전액(246만6400원)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사용된다. 아름다운 가게는 그동안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함양과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순천교육지원청과 업



무협약 후 나눔 행사로 동산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다. 조승래 순천 동산초 교장은 “아름다운 나눔이 지역 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신대지구 팽나무 등 노거수 10그루 보호수 지정 예고

순천시 신대지구 팽나무와 삼사면 응령리 서정마을 느티나무 등 200~600년생 노거수(老巨樹)가 보호수로 지정된다. 순천시는 국가정원 1호 지정에 걸맞게 ‘정원속 도시, 순천 만들기’의 하나로 관내 노거수 전수조사를 실시, 역사·문화적 보존 가치가 높은 희귀목과 주민 쉼터 주변 정자목 등 10그루를 새로운 보호수로 지정 예고 공고를 했다. 이번 지정예고된 보호수는 느티나무 6곳(황전면 죽정리·수증면 죽학리·송광면 이읍리·서면

비율리·삼사면 응령리), 이팝나무 1곳(죽암면 어왕리), 회화나무 1곳(서면 응령리), 팽나무 1곳(해룡면 신대리), 육속 1곳(해룡면 북성리) 등 모두 10곳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순천시 보호수는 107개소 총 118본으로 늘었다.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76본 ▲푸조나무 10본 ▲팽나무 8본 ▲소나무 5본 등 총 14개 수종이다. 시는 보호수 추가 지정 및 노거수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일보 63년 독자와 함께 걸은 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신 062)944-0444	광천 360-8375
군산시 063)487-2500	남광부 222-9440
정읍시 063)531-5544	동광부 652-0175
	동문 264-2012
	동부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898
	봉선 676-5530
	북광부 525-3781
	상무 372-2352
	서광부 369-0683
	송하 678-8605
	신안 512-1732
	양산 6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봉 512-8116
	운천 371-8818
	월곡 961-2339
	중광부 222-1890
	중광부 224-6604
	진월 673-1500
	침단 8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86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